

광양시, 감성 물씬 '배알도 버스킹' 방문객 취향저격

내달 7일까지 매주 토·일 오후 2시부터 열려

광양시 신규관광시설의 브랜드 홍보이벤트 일환인 '배알도 버스킹'이 절찬리에 진행되고 있다.

최근 개방한 배알도 섬 정원에서 매주 토·일 오후 2시, 광양시립 예술단, 지역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버스킹이 방문객들의 호응 속에 열리고 있다.

포크송, 원 클래스 댄스, 합창, 국악 등 다양한 장르로 어우러진 이번 버스킹은 오는 11월 7일까지 방문객들의 취향을 저격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주말 마련한 광양시립 예술단의 고품격 무대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광양의 문화예술을 선보이며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토요일엔 합창, 여성 솔로, 남성 중창 등으로 구성된 시립합창단이 오 솔레미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을 선사하며 감수성을 한껏 자극했다.

일요일엔 시립국악단이 가야금 3중주, 피리 3중주, 해금·소금 중주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

기 등 감성 가득한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과 은빛 역사가 일렁이는 섬 정원에 꾸며진 캠프 콘셉트의 감각적인 무대와 섬세한 소품들도 공연의 격을 한층 끌어올렸다.

무엇보다 배알도 조형물에서 인증 사진을 찍거나 별 해는 다리를 건너는 등 배알도를 자유롭게 즐기는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했다.

섬진강 자전거길을 달리던 라이더들도 잠시 페달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아름다운 선율을 호흡했다.

배알도 버스킹은 내달 7일까지 4회 공연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포크송, 성악, 대금, 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을 계획이다.

한 관광객은 "수변, 섬, 포구를 잇는 바다 위 보도교를 걸으면서 가을을 한껏 만끽했다"며, "낭만 넘치는 광양시립예술단의 공연은 예상치 못한 울가를 가장 고급스러운 선물이었다"고 전했다.

박순기 관광과장은 "배알도 거리

공연은 섬 정원에서 펼쳐지는 열린 음악회이다"며,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배알도를 즐기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배알도수변공원~배알도~운동주춧돌(왕복 4km)를 자유롭게 걷는 배알도 언택트 걷기 대회도 진행 중이다.

시민, 관광객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배알도수변공원, 별 해는 다리, 운동주춧돌 등 지정된 3곳에서 인증사진을 찍어 게시하면 된다.

인증사진은 광양시문화관광홈페이지 내 언택트걷기행사 인증게시판에 업로드하거나 본인 인스타그램 게시 후 광양여행 공식인스타그램(@gwangyang_tour)에 태그해야 한다.

인증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미션 완료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 2만 원권을 증정한다.

시는 방역관리요원을 전담 배치하는 등 안전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속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할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광양=심종섭 기자



보성군, 을지태극연습...코로나19 상황 고려 축소 시행

보성군은 상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2021년 을지태극연습을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규모를 축소해 운영하되 비상시 기본임무를 익히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연습으로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

양한 훈련이 진행될 계획이다.

보성군은 을지태극연습 실시에 앞서 26일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해 을지태극연습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연습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전

시장설기구 설치 및 운영 절차 훈련 등 필수적인 전시전환절차 숙달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며, △도상연습을 통하여 비상사태 시 기관별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고흥군, 제9기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 개강

귀농귀촌인 30명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흥군은 지난 25일,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도시민과 고흥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조기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제9기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개강했다.

2019년 귀농귀촌 행복학교 개소 이후 현재까지 8기에 걸쳐 268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이번 9기 교육은 관내·외 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전문강사 및 선도농가를 초빙하여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

로그램(이론 및 실습)을 실시한다.

고흥군은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였고, 19년 9월에는 군이 직영하는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개소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교육과 농촌체험 기회 부여 및 임시 주택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내사랑 고흥기금」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이미 90억원을 확보하여 귀향청년 정착장려금과 주택수리비, 가업승계 자금, 청년창업가 발굴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며, 귀농·

귀여 창업자금과 살터기반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유지와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민선 7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귀농어·귀촌·귀향인구 4,804명(1개년 규모)이 고흥으로 전입을 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해양수산부가 공동 발표한 '도시민 귀농인 통계'에서 2019년에는 전국 1위, 2020년에는 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2020년 TV조선 브랜드경영 부문 귀농귀촌분야 경영대상, 2020년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평가 우수 시군 선정(3년 연속),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 지역재생산지수 전국 4위, 2021년 산업정책연구원 주최 브랜드 명예의 전당 귀농귀촌도시 부문 선정(3년 연속), 2021년 중앙일보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귀농귀촌 선도도시 부문 선정 등 주목할 만한 성과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귀촌 1번지'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고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귀농어귀촌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순천시, 일상회복추진단 운영 시작

'위드 코로나' 위한 5개 분야 27개 부서 참여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해 발 빠른 준비에 들어간 전남 순천시가 25일부터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한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허석 순천시장의 담화문 발표를 통해 위드 코로나 전환을 선포한 바 있는 순천은 첫 번째 행보로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했다.

일상회복추진단은 허석 순천시장을 단장으로 총괄지원반, 생활안정반, 경제민생반, 사회문화반, 방역의료반 5개 분야로 나눠 27개 부서가 참여해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된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된 교육·복지·취약계층을 지원을 강화하고, 오랜 시간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장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상권 활성화

와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

또 문화 향유를 통한 시민 정서치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시민 85%가 접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환자 급증에 대한 대비방안도 마련한다.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가능하도록 순천의료원을 협업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재택치료 정착·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고, 어려움을 잘 견뎌준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29만 순천시민 모두가 소중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수시, 월내소각장 정기유지보수기간

'생활폐기물 중점 관리'

여수시는 월내소각장 정기 유지 보수로 인해 약 30일간 소각장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점 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중점 관리기간은 25일부터 31일까지 1주간 시범 운영 후, 11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달여간 집중 운영한다.

여수시는 소각장 운영중단에 따른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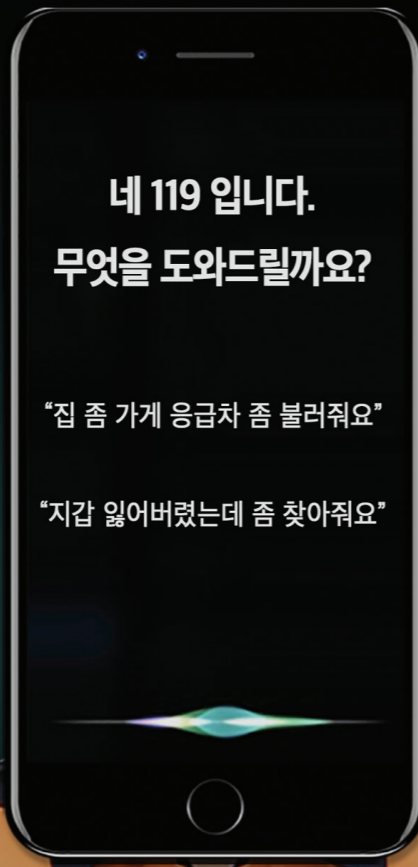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류 혼합쓰레기,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읍면동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취약지역 청결활동과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에 나서는 한편 불법투기 감시원을 활용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여수=오상호 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